

감상
돌

접동새

김소월

읽/기/전/에

내가 새라고 생각하고, 내 마음을 표현할 수 있는 새소리를 만들어 보자.



“설화를 차용하여 우리 민족 고유의 정서를 민요적인 율격으로 노래하고 있는 시이다.
이 작품을 통해 한국 문학의 특질 중 하나인 ‘한(恨)’의 정서를 살펴보고
한국 문학의 전통이 계승되는 양상을 이해해 보자.”

접동

접동

*아우래비 접동

진두강 가람가에 살던 누나는
진두강 앞마을에
와서 옵니다.

옛날, 우리나라
먼 뒤쪽의
진두강 가람가에 살던 누나는
의붓어미 시샘에 죽었습니다.

누나라고 불러 보라
오오 *불설워
시새움에 몸이 죽은 우리 누나는
죽어서 접동새가 되었습니다.

아흠이나 남아 되는 *오래동생을
죽어서도 못 잊어 차마 못 잊어
*야삼경 남 다 자는 밤이 깊으면
이 산 저 산 옮겨가며 슬피 옵니다.

* 아우래비 아흠오라비.

* 불설워 몹시 서러워.

* 오래동생 오래동생. ‘오래비’의
방언.

* 야삼경(夜三更) 밤 열한 시에서
새벽 한 시 사이.



김소월(1902~1934) 시
인. 한국의 전통적 율조와
정서를 시화(詩化)한 대표적
인 시인이다. 민요조에 기반
을 둔 그의 시는 향토적 소
재와 설화적 내용을 주로 다
루었다.

[주요 작품] 「진달래꽃」, 「산
유화」, 「가는 길」 등

- 『진달래꽃』(1925)

학습 활동


활동 1

이 작품의 시어를 중심으로 활동을 해 보자.

(1) 이 작품의 시·공간적 배경이 되는 시어를 찾아보자.

- 시간적 배경:
- 공간적 배경:

(2) 이 작품에서 점동새의 울음소리를 표현한 시어를 찾아보자. 그리고 시어들의 배치가 낡는 효과를 말해 보자.



점동새 울음소리

시어의 배치 방법

↓

효과

(3) ‘누나’가 겪었던 일과 관련지어 ‘점동새’의 상징적 의미를 파악해 보자.

활동 2

이 작품의 화자를 중심으로 활동을 해 보자.

(1) 이 작품의 화자가 누구인지 말해 보자.

(2) 화자의 감정이 직접적으로 표출된 부분을 찾아보자.

(3) 화자가 4연에 와서 ‘누나’를 ‘우리 누나’로 바꿔 부른 이유를 생각해 보자.





목표 활동

활동 3

다음은 이 작품의 창작 배경이 된 설화이다. 이를 읽고 활동을 해 보자.



평안북도 박천의 진두강가에 한 소녀가 부모와 아홉 동생들과 함께 살았다. 어느 날 소녀의 어머니가 죽자 아버지는 곧 재혼을 하였는데, 계모는 심성이 매우 포악하여 아이들을 학대하고 구박하였다. 시간이 흘러 소녀는 이웃 부잣집 도령과 혼약을 맺게 되었고, 도령에게서 많은 예물을 받았다. 계모는 이를 시샘하여 소녀를 장롱에 가두고 불을 질러 죽였다. 동생들이 소녀의 죽음을 슬퍼하자 소녀의 죽은 혼은 잣더미에서 접동새가 되어 날아올랐다. 뒤늦게 이 사실을 알게 된 관가에서는 계모를 잡아 불태워 죽였다. 계모의 죽은 혼은 까마귀가 되었고, 접동새는 까마귀가 두려워 남들 다 자는 밤에만 나타나 아홉 동생들을 걱정하며 슬프게 운다.

- (1) 「접동새」에서 설화를 형상화한 부분을 찾아보자. 그리고 「접동새」와 이 설화에 공통적으로 나타나는 정서를 말해 보자.
- (2) 예로부터 전승되어 오는 설화에는 우리 민족의 전통과 생활 양식 등이 담겨 있다. 현대 문학 작품이 이러한 설화를 수용하는 것이 어떤 의미가 있는지 말해 보자.

목표 활동

활동 4

다음에 참고하여 이 작품에서 찾을 수 있는 한국 문학의 전통을 설명해 보자.

1920년대 한국 시단에서는 민요조의 서정시를 통해 한국 현대시의 시적 형식을 정착시키고 민족적 정서를 시적으로 표현할 방향을 마련했다. 이 시기에 본격적인 창작 활동을 시작했던 김소월은 한국 시의 전통적 율조를 자유롭게 구사하였고, 향토적인 소재를 수용하여 우리 민족의 보편적인 정서를 표출하였다.



- 전통적 율조:
- 향토적인 소재:
- 민족의 보편적 정서: